

### 등록 절차 :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선발 영상을 업로드하고 등록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2022년 4월 15일까지** 등록비를 지불하십시오. 각 악기의 레퍼토리보기.

### 오디션 영상에 대한 제한 :

1. 모든 오디션 동영상은 무편집, 원테이크로 녹화해야 합니다. 오디션 동영상은 파일 하나에 한 곡만으로 녹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순서대로 온라인 신청사이트에 업로드해 주세요.
2. 오디션 지정곡은 독주곡, 혹은 합주곡이 있을 경우, 1년 안에 열린 음악회 현장 녹화 동영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3. 만약 오디션 동영상에 편집한 내용이 있을 경우, 신청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점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업로드하기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동영상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악기 선택 :

현악기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관악기 :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프렌치 호른, 트럼펫

### 연령 제한 :

**15 ~ 30 세 (2022년 8월 1일 이전)** \*18세 미만 지원자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서식 파일 다운로드)

### 등록 날짜 :

조기 할인 등록 기간 : **2022년1월15일 ~ 2월15일**  
일반 등록 기간 : **2022년2월16일 ~4월15일** \* 동부 일광 절약 시간 (EDT)

### 등록비 :

조기등록 할인 : US\$60  
등록 가격 : US\$100

### 수업료 및 숙식비 :

수업료: US\$2,000      ]      합계 : US\$2,500  
기숙사비: US\$500

### 장학금 :

1. TMAF는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 및 학생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우수학생 장학금은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 없으며 입학통지와 함께 통보됩니다.
2. 교통 보조금 및 숙박 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학자금 보조 지원 신청서는 입학 후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숙박 및 식사 :

기숙사는 국립 타이베이 예술 대학 학생 기숙사 (더블룸)에 있으며, 1 인실로 업그레이드해야하는 경우 추가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업료에는 숙박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 밖에서 숙박이 가능하나, TMAF 페스티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수있도록 캠퍼스에서 숙박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 교통 :

TMAF는 콘서트 당일과 투어 중에 모든 학생들에게 교통편과 숙박을 제공 할 것입니다

# 타이베이 음악제 7.25~8.8

미국에서 열린 대만 대표 축제

바이러스가 공연계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2020년 여름에 대만에서 날아온 소식은 뜻밖이었다. 이 소식은 암흑과도 같았던 시기에 한 줄기 빛이자, 모두가 동경하는 탈출구와도 같았다. 철두철미한 자가 격리 감수하고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대만으로 향하는 음악가들이 주목을 받았다. 대만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이 선두에 섰고, 서울시향 음악감독 오스모 벤스케, 그리고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같은 음악가들은 대만 국립교향악단과 협연 무대를 가졌다. 같은 시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초량린이 예술감독을 맡은 타이베이 음악제(Taipei Music Academy Festival-TMAF)도 대만으로 열렸다. 에머슨 현악 4중주단의 바이올리니스트 필립 세차,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악장 데이비드 찬과 같은 베테랑 연주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대만행을 감행하여 젊은 연주자들을 만나고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매년 여름 국립 타이베이 예술대학에서 2주간 열리는 TMAF는 15~30세 사이의 젊은 음악가들을 선발하여 개인 레슨, 실내악 수업, 오케스트라 트레이닝, 마스터 클래스, 그리고 교수진과 함께 꾸미는 음



초량린  
음악제  
감독

악회를 갖는 대만의 대표적인 국제 음악제이다. 지난해, 전 세계 모든 극장과 박물관이 문을 닫던 시기에 TMAF는 대만 내의 대형 콘서트홀에서 전회 매진을 기록했다.

## '어디냐'보다 '하느냐'가 더 중요

지난 5월 25일 '뉴욕타임스'는 연주자들에게 천국과도 같았던 대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백신 개발과 접종에 전력을 다했던 미국에 비해, 대만은 백신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쪽으로 방역을 해왔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독을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결국, 이 시기부터 코로나 청정국이었던 대만의 음악회는 대부분 취소되었고, 예정된 TMAF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있고 한 달 후, 초량린 예술감독은 음악제 취소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신묘한 대안을 발표했다. 내용의 골자는 올해 음악제는 예정대로 개최하되, 대만으로부터 1만km 떨어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음악원에서 열리는 대만 공연이었다. 초량린 감독은 '샌프란시스코 클래식 보이시'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인해 대만 극장은 어둠에 잠겼지만, 대신 미국 무대의 커튼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샌프란시스코에서 음악제가 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TMAF@SF(7.25~8.8)'로 이름 지어진 올해 음악제는,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



은 레너드 슬래트킨을 비롯하여, 피아니스트 게릭 울슨, 그리고 LA 필하모닉, 시카고 심포니,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 미국 내 메이저 악단의 악장과 수석을 비롯해 줄리아드 음악원, 커티스 음악원, 콜번 음악원, 라이스 대학의 교수진이 참여했다. 참석자와 교수진이 펼치는 음악회는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의 야외극장, 프리스트 원형 극장과 샌프란시스코 음악원 내의 두 군데 홀에서 나누어 개최되었다. 공연 실황은 TMAF 페이스북과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매체인 '바이올린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중계되었다. 아직 전 세계 어느 곳도 팬데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연 개최의 문턱에서 반복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큰 공연을 마쳤다는 아슬아슬한 소식도 듣는다. 이런 시기일수록 가능성을 탐구하고 유연함으로 상황을 마주해야 선택지는 넓어진다. 초량린 감독과 TMAF이 그 예를 보여준 셈이다. 글 김동민(뉴욕 클래식 플레이어스 음악감독) 사진 타이베이 음악제



TMAF 유튜브



프리스트 원형극장